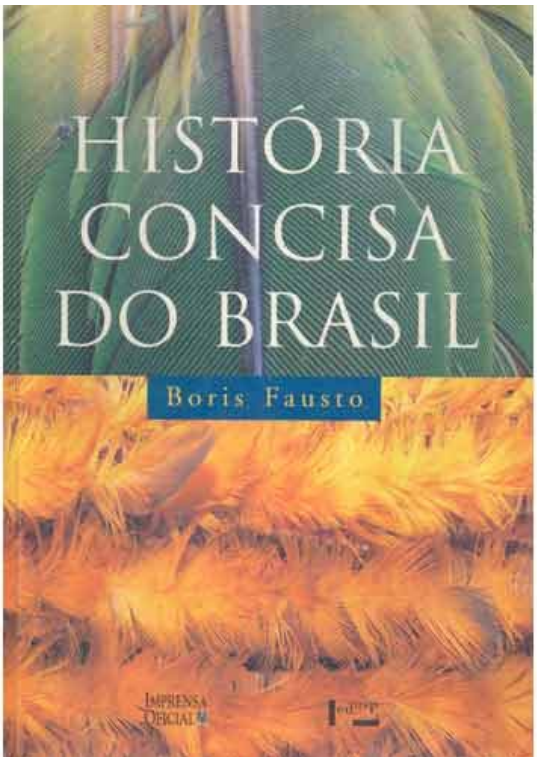
식민 체제의 위기와 군주제로 독립한 브라질

보리스 파우스투(Boris Fausto)

1. 식민 체제의 위기



보리스 파우스투의『브라질사』의 표지

18세기 후반기, 서양세계는 일련의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는 관념의 차원과 실제의 차원, 양쪽 모두에서 나타났다는 데 그 특징이 있었다. 특정 개념과 관습에 바탕을 두고 16세기 초부터 지배력을 갖기 시작한 구체제(ancien régime), 즉 유럽의 절대왕정이라는 통치방식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먼저, 프랑스 철학자들과 영국 경제학자들로부터 비롯된 계몽사상과 자유주의적 시각이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었다. 그와 더불어 몇몇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서양세계의 변화를 초래했다. 1776년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했으며, 1789년 초에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나 프랑스 구체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프랑스혁명의 반향은 무력 사용을 수반하면서 유럽 전체로 파급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산업혁명이다. 새로운 에너지 원천의 이용, 기계의 활용(특히 섬유분야), 농업의 발전과 국제무역의 장악으로 영국은 당대 세계 최강국으로 탈바꿈하였다.

더 넓은 시장을 찾아 나선 영국은 세계 도처에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중상주의 원칙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보호관세를 통해 자국과 식민지 시장을 보호하려 하였다. 영국이 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나 포르투갈 식민지와 관계를 강화하자 식민 체제에 갈수록 큰 균열이 나타났다. 영국인들은 무역 협정, 현지 상인과의 동맹, 밀수 등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한편, 식민지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이 등장했다. 당시 강대국의 위치에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처음으로 노예제도의 제한이나 폐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1794년 2월, 프랑스 혁명정부는 식민지에서 노예제를 철폐한다고 선언하였다. 1807년에는 영국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1802년 노예제 폐지를 철회하였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영향은 포르투갈 왕실과 그 최대 식민지인 브라질 사이의 관계에도 파급되었다. 유럽의 열강들과 비교할 때, 포르투갈은 18세기 중반 이미 후진국의 지위로 전락한 상태였다. 포르투갈은 영국에 종속되는 대신 프랑스나 스페인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포르투갈 왕실은 식민 체제를 고수하고 브라질에 미치는 영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애를 썼다.

이 시기, 포르투갈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동 조제 1세의 즉위(1750년)이다. 하지만, 왕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후에 폼발 후작이 되는 세바스치앙 조제 지 카르발류 이 멜루(Sebastião

José de Carvalho e Melo)였다. 폼발은 오스트리아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고 영국 대사도 역임했지만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고, 50세가 넘어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임기(1750년~1777년) 중 그는 포르투갈 행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식민지와의 관계 변화에 주력하였다. 폼발의 개혁은 구체제와 신체제의 독특한 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포르투갈이 지닌 특수성이 놓여 있었다. 그는 계몽적 절대주의를 지향하였고, 나아가 이를 중상주의 원리에 접목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여기서는 브라질에 해당되는 중요한 정책만을 검토하기로 하자.

세바스티앙 조제 지 카르발류 이 멜루

폼발은 중상주의 논리에 따라 특권을 지닌 두 개의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하나는 1755년에 세워진 '그랑-파라 이 마라냥 무역 종합회사(Companhia Geral do Comércio do Grão-Pára e Maranhão)'이고, 다른 하나는 1759년에 설립된 '페르남부쿠 이 파라이바 종합회사(Companhia Geral de Pernambuco e Paraíba)'이다. 전자(前者)의 업무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수출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수입업자들의 관심을 끄는 일이

었다. 카카오, 정향(丁香), 계피의 일종인 시나몬, 후일 새롭게 생산된 면화와 쌀 등을 독점적으로 수송하여 유럽의 소비시장에 공급하였다. 폼발은 흑인 노예도 들여왔다. 하지만, 북부지역의 빈곤으로 이 노예들은 마투그로수의 광산으로 향했다. 두 번째 회사의 목적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북동부의 부흥에 힘쓰는 일이었다.

이 특권회사들로 인해 브라질 상인층이 밀려났기 때문에, 폼발의 조치는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정책에 식민지 지배층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깃들어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식민지 상류층을 정부기관이나 사법, 군사기관에 채용하여 행정과 재무의 책임을 맡게 하였다.

폼발의 경제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 브라질이 경제 불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1770년대까지 이어진 이 불황의 주된 원인은 설탕산업의 위기와 금 생산량의 감소였다. 포르투갈은 수입 감소와 비용 증대의 이중고를 겪었다. 특히 리스본의 재건과 스페인과의 전쟁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지출해야만 했다. 리스본은 1755년 지진으로 파괴된 상태였고, 스페인은 남부 상파울루에서 라플라타 강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걸어왔다.

폼발은 금과 다이아몬드의 밀수를 줄이고 조세를 확충하여 이에 대처하려 하였다. 미나스제라이스에서는 인두세(capitação) 대신 과거의 '5분의 1세(quinto)'를 부활시켰다. 정부는 연간 100아로바(약 1,500킬로그램)의 금을 세금의 최저한도로 설정하였다. 한편,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파산이 잇따르자, 왕실은 1771년부터 직접 운영에 나섰다. 그와 동시에 수입 제품 의존도를 낮추려고 포르투갈은 물론 브라질에도 공장을 설립하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며 독려하였다.

폼발의 정책 중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1759년 포르투갈 본국과 모든 식민지에서 단행된 예수회 추방이었다. 또한 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이러한 조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폼발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포르투갈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길 원하던 그에게 종교 교단의 자율적 활동은 금지의 대상이었다. 교단의 활동과 국가의 목표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예수회 다음으로 중요한 수도회라 할 수 있는 자비수도회도 아마존 지역에서 추방되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하지만 폼발의 중심 표적은 예수회였다. 그들은 '국가 안의 국가'를 형성한다고 줄곧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폼발의 판단에 따르면, 브라질의 북부와 남부 국경지대를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을 포르투갈 문명 안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었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주민들이 본국 포르투갈에 일체감을 느끼며 협력하지 않는다면, 광활하면서도 거주인구가 적은 식민지 지역들을 통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원주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연속적으로 시행되었다. 먼저 1757년 원주민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아마존 지역의 많은 선교 마을들은 공적(公的)인 행정단위로 바뀌었다. 또한 백인과 원주민의 결혼을 권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동화정책들은 예수회의 온정적 가족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스페인 예수회는 우루과이의 '일곱 민족'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원주민들의 반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포르투갈이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과라니 전쟁(1754-1756)'[1]의 도화선이 되었다. 예수회의 광

1) 역주) 포르투갈과 스페인 양국이 국경을 확정짓기 위해 체결한 마드리드 조약에는 우루과이 강 동쪽의 이른바 일곱 민족 지역이 포르투갈령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대한 소유지는 브라질 지배층과 왕실 모두가 탐내는 목표물이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수회로부터 압류한 농촌과 도시의 소유지들은 경매를 통해 대농장주나 부유한 상인들에게 넘어갔다. 규모가 큰 교회들은 수도회에 소속되지 않은 주교들에게 귀속되었다. 예수회가 운영하던 많은 학교는 고관의 저택이 되거나 군대 병원으로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예수회가 소장한 서적 등 문화적 자산은 가치가 없다 하여 폐기되고 말았다.

원래부터 빈약했던 식민지 교육체제는 예수회 추방으로 공백이 더 커졌다. 포르투갈 왕실은 스페인 왕실과는 달리 식민지에 학식 있는 지배층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스페인은 이미 16세기에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 여러 대학을 설립하였다. 1538년에는 산토도밍고에, 그리고 1551년에는 리마와 멕시코시티에 대학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런 일은 포르투갈령 아메리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언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6세기에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주요 도시에는 신문이 등장했다. 예외적으로 1747년 히우지자네이루(리우데자네이루)에 인쇄소가 문을 열긴 했지만, 곧 폐쇄 칙령이 떨어졌다. 포르투갈 왕실이 리우로 피신하기 전까지 브라질에는 인쇄·출판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회 추방으로 발생한 교육 부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왕실은 몇 가지 대책을 강구했다. 먼저 국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교육보조금이라 불리는 특별세를 신설했다. 올린다의 주교는 올린다 신학교(神學校)를 세워 전문적인 자연과학과 수학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히우지자네이루와 사우바도르에는 지식인들의 작은 모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포르투갈의 지배를 인정하며 그대로 머무르거나 강의 서쪽 스페인령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에 원주민들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마드리드 조약에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전쟁은 스페인-포르투갈 연합군의 승리로 종결되고, 원주민들은 큰 희생을 치른다. 이 전쟁은 영화 '미션'의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다.

수도회에 관련된 폼발의 정책들은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방침의 일환이었다. 다만, 국가는 교황과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려고 노력했다. 교회 측에서도 예수회의 추방을 용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1773년 교황 클레멘스 14세는 예수회를 폐지하였다. 이 수도회의 가치를 뛰어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후 예수회는 1814년이 되어서야 부활한다.

포르투갈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폼발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고, 이를 통해 하나의 구체적인 개념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것은 폼발 재임 시절과 그 직후인 도나 마리아 1세 통치기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많은 점이 바뀌었다. 무역 종합회사는 폐지되고, 브라질에서는 공장의 운용과 직물 제조가 금지되었다. 예외적으로 노예들이 입는 거친 무명 옷감만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과 뒤에 다룰 '미나스의 변절'(Inconfidência Mineira)의 연루자들에 대한 형벌로 브라질 역사가들은 폼발 실각 이후의 시기를 부정적으로 서술해 왔다.

하지만 1777년에서 1808년까지, 포르투갈 왕실은 중상주의적 식민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개혁을 지속한 것도 사실이다. 이전의 폼발 시기와는 달리, 도나 마리아 1세와 섭정 황태자 동 주앙 6세는 브라질 농업이 되살아나면서 유리한 환경을 맞게 되었다. 게다가 설탕의 주 생산지인 생도맹그[2]에서 노예반란이 일어나 브라질 설탕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되었다. 거기에 경작물도 더해졌다. 면화재배는 폼발의 무역 종합회사에서 성장시킨 것인데, 미국 독립전쟁의 덕을 보며 더욱 촉진되었다. 일정 기간 동안 마라냥은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2) 오늘날 아이티에 해당하는 프랑스령 식민지 생도맹그(Saint-Domingue)는 당시 세계 최대의 설탕생산지였다.

2. 반란과 국민의식

포르투갈 왕실이 절대주의적 개혁을 계속하는 사이,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에 저항하는 여러 반란이 계획되고,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사상이나 사건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이지만 브라질 현지의 상황도 반영이 되었다. 이는 전국적 규모의 혁명이라기보다는 한 지역의 반란이라는 측면이 더 강했다. '미나스의 변절'(1789), '알파이아치스(재봉사)의 음모'(1798), 페르남부쿠의 '1817년 혁명' 등 일련의 사건이 공통적으로 지닌 특징은 모두 지역 반란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브라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브라질에 살고 있던 일부 포르투갈인들이 브라질을 포르투갈과는 별도의 구성단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달리 표현하면, 어느 시점부터 그들에게 '브라질인'이라는 의식이 나타난 것일까? 이런 종류의 질문에 정확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식은 식민지의 여러 세력이 본국과는 다른 이해를 갖거나, 자신들이 지닌 문제의 근원이 본국에 있다고 생각할 때 형성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식민지 세력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양 극단의 한쪽에 대토지소유자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직인과 낮은 급료의 병사가 위치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대학 졸업자나 지식인들이 놓인다. 또한 여러 세력이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프랑스 사상'이나 미국 혁명의 자유주의에서 자극과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배계층은 그러한 사상들을 제한적으로만 수용하려 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노예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반대로 피지배층에게 독립사상은 평등주의적

사회개혁의 이상과 분리될 수 없었다.

페르남부쿠의 '마스카치스의 전쟁'(1710), '펠리피 두스 산투스의 반란'(1720)을 필두로 한 미나스제라이스의 다양한 반란, 그리고 1700년대 말부터 1820년대까지의 시기에 발생한 반란의 음모나 혁명들은, 종종 국민의식이 형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예로 거론된다. 물론 그러한 시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브라질 국민의식에는 지역의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당시의 반란자들은 자신들이 브라질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자신들을 미네스제라이스인(mineiro), 바이아인(baianos), 페르남부쿠인(pernambucanos), 그리고 때로는 가난한 평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8세기말 이후,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움직임은 이른바 '미나스의 변절'로 1789년 미나스제라이스에서 발생했다. 이 반란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사건 자체보다는 그 상징성이 지닌 의미 때문이었다. 이 운동은 당시 미나스제라이스의 악화된 상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동시에 주모자들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새로운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다. 미나스제라이스의 많은 지도인사들은 유럽에서 수학하면서 세계를 여행하였다. 예를 들면 포르투갈 코임브라대학에 유학한 조제 조아킹 다 마이아(José Joaquim da Maia)는 1789년 프랑스 몽펠리에의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듬해까지 당시 미국대사로서 프랑스에 주재하던 토머스 제퍼슨과 접촉하였으며, 브라질에서 준비 중이던 혁명에 지원을 요청했다. 또 다른 주모자인 조제 알바리스 마시에우(José Alvares Maciel)는 코임브라대학을 졸업한 후, 영국에서 1년 반을 보냈다. 거기서 제조 기술을 배우며, 영국 상인들과 브라질 독립운동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변절자'들의 대부분은 광산주, 대농원주, 사업에 관여한 성직

미나스의 변절 (페드루 아메리쿠, 1873)

자, 고급 관료나 변호사, 군의 상급 간부 등으로 이루어진 식민지 지도층 인사들이었다. 모두 미나스제라이스의 식민지 당국과 연관이 있었고, 일부는 사법 기관의 일원이기도 했다.

조제 조아킹 다 시우바 샤비에르(José Joaquim da Silva Xavier)는 어느 의미에서 예외였다. 7형제 중 한 명으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읜 시우바 샤비에르는 부채로 재산을 잃고 사업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 1775년에는 장교 중 가장 낮은 계급인 소위로 군에 입대했다. 또한 짬을 내어 치과의사로 일했고, 비하(卑下)의 의미가 담긴 '치라덴치스'[3]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18세기말의 미나스제라이스 사회는 쇠퇴기였다. 금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포르투갈 왕실은 여전히 5분의1세를 철저히 징수하였다. 또한 현지 지도층 인사들과 카피타니아 정부의 긴밀한 관계도 1782년 카피타니아의 신임 장관 루이스 다 쿠냐 메네지스가 부임하면서 흔들리게 되었다. 쿠냐 메네지스는 지역 유지들을 멀리하고, 친분이 있는 측근들에게만 혜택을 주었다. 비록 유지는 아니었지만 '치라덴치스'도 직위에서 해임되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경비부대 지휘관인 그의 임무는, 만치케이라 산

3) 어휘상으로는 '이 뽑는 의사'라는 의미.

맥을 관통하여 금광지대 관문 역할을 하던 전략도로들을 순찰하는 일이었다.

쿠냐 메네지스 후임으로 바르바세나(Barbacena) 자작이 임명되자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포르투갈 수상 멜루 이 카스트루(Melo e Castro)에게 매년 100아로바의 금을 세금으로 징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양을 채우기 위해 카피타니아 장관은 사용가능한 모든 종류의 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는 '데하마(derrama)'라는 일종의 인두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왕실에 채무를 진 사람들은 물론, 정부당국과 일반 시민들 간의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하라는 훈령을 받았다. 이러한 훈령으로 카피타니아 전체에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특히 왕실에 채무가 많은 사회 유력자 계층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데하마' 선포를 예상한 '변절'의 주모자들은 그보다 한발 앞서 1788년 말에 반란을 도모했다. 그러나 봉기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1789년 3월 계획이 발각되어 주모자들이 고발되었고, 바르바세나는 어떤 종류의 '데하마'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주모자 중 치라덴치스는 히우지자네이루에, 그 밖의 사람들은 미나스제라이스에 투옥되었다. 식민지의 수도 히우지자네이루에서 열린 재판은 오래 지속되었고, 마침내 1792년 4월 18일 판결이 내려졌다. 치라덴치스와 다른 여러 피고인들에게 교수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여왕 도나 마리아 1세의 '사면서한'으로 치라덴치스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전원 감형되어 브라질 추방형을 받았다. 1792년 4월 21일 아침 치라덴치스의 처형을 위해 구체제의 전형적인 교수형 무대가 설치되었다. 또 다른 무대 구성요소로 군대가 등장하고, 여왕을 찬양하는 연설이나 환호가 있었다. 교수형이 집행된 후 그의 몸은 동강이 났고, 베어진 머리는 오루 프레투의 중앙광장에 내걸렸다.

‘변절자’들은 무엇을 추구한 것일까? 대답은 간단치 않다. 대부분 왕실이 주관한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그 대답을 유추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에게 법정 진술은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외견상 대부분의 주모자들은 미국 헌법을 모델로 한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다이아몬드 지역을 압박한 여러 제한의 철폐, 왕실에 빚진 부채 탕감, 장려금을 통한 공장 건설 촉진 등도 모색하였다. 또한 상비군을 폐지하고, 그 대신 필요한 경우 시민들이 무장하여 의용군을 구성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많은 제안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노예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념의 일관된 유지와 자신들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주동자들은 중간을 선택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브라질 태생 노예들의 해방을 지지하였다.

미나스제라이스의 ‘변절’은, 외형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한 국가의 역사에 얼마나 커다란 여파를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반란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성공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군사적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페르남부쿠에서 북동부의 광대한 지역으로 확산된 ‘1817년 혁명’이 더 중요했다. 그러나 ‘미나스의 변절’이 지닌 중대한 의미는 그 상징성의 힘에서 나온다. 치라덴치스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처형 장면, 시신의 절단, 내걸린 머리 등은 학교 수업에서 감동과 전율을 전해가며 계속 상기되었다. 이는 하루아침에 빚어진 현상이 아니다. 독자적인 역사를 지닌 신화로 형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처음에 식민시대에는 식민 통치자들의 해석이 우세하였다. ‘미나스의 변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기묘하게도 이 명칭은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변절’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로, 충성심의 결여, 특히 국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의 불이

행을 뜻한다. 브라질 독립 직후의 군주정 시대에 '미나스의 변절'은 거북한 사건이었다. '변절자'들이 군주제에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브라질의 두 황제는 혁명가들에게 내려진 판결의 최종 책임자인 도나 마리아 1세의 직계 자손이기도 했다.

19세기 말 브라질 공화국이 선포되자 '미나스의 변절'의 입지는 완전히 바뀌었고, 치라덴치스는 공화국의 순교자로 거듭났다. 이런 변화는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식민지 주민을 위협하려고 포르투갈 왕실이 기획한 거대한 처형 무대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사건의 기억과 '변절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선명하게 유지되었다. 재판 과정의 어느 시점부터 음모의 전 책임을 혼자 짊어지면서 마침내 처형을 당하게 된 치라덴치스의 희생적인 모습은 공화국 선포 후 이 인물의 신화화를 재촉하였다. 4월 21일은 축제일로 지정되고, 치라덴치스의 얼굴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예수의 초상과 갈수록 닮아갔다. 이렇게 해서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순교자로 추앙받는 몇 안 되는 국민적 영웅이 탄생한 것이다.

* * *

브라질의 독립은 본국과 혁명적인 단절을 통해서가 아니라, 식민지시대의 연속선상에서 부분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며 달성되었다. 이 과정은 포르투갈 왕실의 브라질 이전, 브라질 항구의 대외개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브라질 식민 체제는 결말을 맞게 되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영국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은 포르투갈 왕실까지 여파가 미쳤다. 서유럽 거의 전역을 지배한 나폴레옹은 영국과 유럽 대륙 간 교역을 봉쇄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대륙

봉쇄의 틈새였다. 1807년 11월 프랑스군은 스페인-포르투갈 국경을 넘어 리스본으로 진군했다.

당시 포르투갈 왕국은 황태자 동 주앙 4세가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킨 모친 도나 마리아를 대신하여 1792년부터 섭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왕실 전체를 브라질로 옮기기로 신속하게 결정하였다. 1807년 11월 25일에서 27일까지, 약 1만~1만 5천명을 태운 포르투갈 선박이 영국 함대의 호위를 받으며 브라질로 출발했다. 장관, 평의원, 최고재판관, 재무관료, 육·해군 지휘관, 고위 성직자 등 모든 관료기구가 식민지 브라질로 이동했다. 또한 왕실의 보고(寶庫), 정부의 문서고(文書庫), 인쇄기, 그리고 히우지자네이루 국립도서관의 토대가 된 많은 장서도 함께 운반되었다.

브라질에 당도한 동 주앙이 바이아에 일시 체류하였을 때, 우호국들에게 브라질 항구를 개방하였다(1808년 1월 28일). 그 당시 '우호국'이란 영국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 결정으로 300년에 걸친 식민 체제는 막을 내렸다. 히우지자네이루에 도착한 섭정황태자는 1808년 4월 브라질에 공장 설립을 금한 법령들을 혁파하고, 공업 원재료 수입에 부과된 관세를 폐지하였다. 또한 모직, 면직, 제철 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발명이나 신형 기계 도입을 장려하였다.

개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상 가능한 방책이었지만, 시대적 상황 때문에 촉발된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군에 점령당한 포르투갈에서는 어떠한 무역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왕실 입장에서는 식민지 브라질과 영국의 밀무역을 합법화하여 세금을 거두는 편이 이익이었다.

이러한 조치의 최대 수혜국은 영국이었다. 히우지자네이루는 영국 공산품의 수입항이 되었고, 이 제품들은 브라질은 물론 라플라타 강 지역이나 남미의 태평양연안까지 유통되었다. 1808년 8

월경에는 이미 150~200명의 영국 상인과 무역 대리인이 히우지자네이루에 주재하였다. 개항은 설탕이나 면화 등 수출용 작물을 생산하는 농장주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자 이들은 본국의 무역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에는 식민 체제에 의한 규제 없이 누구에게라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반면, 이 조치는 히우지자네이루와 리스본 상인들의 커다란 항의를 유발하여, 황태자 동 주앙은 그들에게 몇 가지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08년 6월의 법령에서 자유무역은 벨렝, 상루이스, 헤시피, 사우바도르, 히우지자네이루의 항구로 한정되었다. 또한 식민지 내부에서의 상거래는 포르투갈 선박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였다. 가격의 24%로 책정되었던 수입 물품의 관세는 포르투갈 선박이 운송한 경우에 한해 16%로 인하되었다. 이 마지막 조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곧 효력을 잃게 된다.

식민지 브라질 시장을 장악하려는 영국의 시도는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오랜 협상 끝에 1810년 2월 양국 간 통상·항해조약이 체결되었다. 포르투갈 왕실은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었다. 포르투갈 본국의 탈환이 전적으로 영국, 구체적으로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영국의 승리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르투갈 식민지도 영국 함대의 보호를 받는 상태였다. 1810년 조약에서 브라질에 들어오는 영국 수출품의 관세가 15%로 정해지면서, 영국 제품은 포르투갈 제품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국의 제품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었지만, 영국 제품의 우세는 압도적이었다. 유럽 자본주의 세계에서 후발국에 해당하는 포르투갈은 보호관세 없이는 제품의 가격이나 다양성에서 영국과 경쟁할 수 없었다. 결국 동 주앙이 초기에 표방한 공업화 정책은 몇 가지 드문 예외를 제외

하고 사문화(死文化)되었다.

한편, 브라질 식민지 사회의 지배층은 영국의 한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과거 영국은 노예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18세기말부터는 노예제도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1810년 통상·항해조약과 더불어 체결된 우호·동맹 조약에서 포르투갈 왕실은 노예무역을 자신의 영토 내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협약하였다. 그리고 막연하지만 그 내부 무역도 앞으로 조치를 취하여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수년 후 나폴레옹 전쟁의 전승국들이 모인 빈 회의(1815)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적도 북부 지역에서 노예무역을 금지하기로 한 새로운 조약에 조인하였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미나 해안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노예무역은 중지해야만 했다. 또한 이 조약의 추가조항에서 노예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수색하고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이 영국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노예무역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1820년대 들어 노예무역은 1700년대 말~1800년대 초보다 더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와 브라질 사회 지배층 사이에는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이 대립은 브라질 독립 이후 더욱 첨예해진다.

포르투갈 왕실이 브라질로 이전하면서 남아메리카의 국제관계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외무성이 히우지자네이루에 설치되자, 포르투갈의 외교 정책은 이제 식민지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포르투갈 왕실은 영국의 요청으로 프랑스령 기아나에 원정대를 보내는 한편, 라플라타 강 지역, 특히 반다 오리엔탈(현재의 우루과이) 지역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곳은 17세기말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충돌을 반복해 온 지역이었다.

동 주앙 6세는 반다 오리엔탈을 브라질에 병합시키려고 1811년과 1816년, 두 차례에 걸쳐 군사 작전을 전개했다. 우루과이 독립

운동의 중심인물인 아르티가스의 패배로 포르투갈은 반다 오리엔탈의 소유를 확실히 하였다. 1821년 이 지역은 시스플라치나(Cisplatina)라는 이름으로 브라질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라플라타 강 지역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왕가의 이전과 함께 히우지자네이루는 결정적으로 식민지 행정의 중심축이 되었다. 도시의 외형이 변화하고 문화생활도 누리기 시작했다. 서적을 구할 수 있게 되자, 사상이 소통되었다. 1808년 9월에는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최초의 신문이 등장하였다. 왕실은 물론 급증하는 도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극장, 도서관, 문학 및 과학 아카데미 등이 설립되었다. 동 주앙 6세가 브라질에 체재한 기간에(1808~1821), 수도 히우지자네이루의 인구는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배가되었다. 새로운 주민의 대부분은 이민자였으며, 포르투갈인만이 아니라, 스페인인, 프랑스인, 영국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전문직 종사자나 숙련된 장인으로, 중산층을 형성했다.

이들 외에도 외국인 과학자나 여행가들이 브라질을 찾았다. 그 중에는 특히 박물학자이자 광물학자인 영국인 존 모우, 바이에른 출신의 동물학자 스픽스와 식물학자 마르티우스, 프랑스인 박물학자 생틸레르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이 남긴 저술은 당대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료가 되었다. 또한 1816년 3월에는 프랑스 예술 사절단이 히우지자네이루를 방문했다. 이 사절단 속에는 도시건축 설계로 유명한 건축가 그랑장 드 몽티니, 화가 에밀리 토네와 장 드브레가 포함되어 있었다. 토네와 드브레는 19세기 초 히우지자네이루의 풍경이나 풍속을 그린 스케치와 수채화를 남겼다.

포르투갈 왕실은 브라질로 이전한 후에도 포르투갈의 입장을 유

지하면서, 포르투갈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는 여러 곳에서 불만이 표출되었는데, 주요 진원지 중 하나는 군대였다. 동 주앙은 브라질의 중심 도시들을 방어하기 위해 포르투갈에서 병력을 불러왔다. 그리고 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는 포르투갈 귀족에게 배정했다. 더욱이 왕실의 경비나 라플라타 강 지역의 군사작전 비용 등을 이제는 브라질이 홀로 떠안아야 했으므로 세금 부담이 더욱 무거워졌다.

여기에 지역 간 불평등이라는 문제도 존재했다.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 팽배한 정서는, 왕실의 브라질 이전으로 식민지의 정치적 지배권이 하나의 먼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즉 리스본에서 히우지자네이루로 옮아갔다는 것이었다. 1817년 3월 페르남부쿠에서 일어난 혁명에는 이러한 감정이 다른 여러 불만과 섞여 있었다. 다른 불만들이란 주로 경제적 상황과 포르투갈인에게 주어진 특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1817년 혁명에는 군인, 농촌 지주, 판사, 장인, 상인, 다수의 성직자 등 광범위한 사회 계층이 참여했다. 이 혁명은 실제로 성직자들의 참여가 많아 '신부(神父) 혁명'이라고도 불리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역에 종사하는 브라질 대상인들의 존재이다. 이들은 그때까지 포르투갈 상인들이 독점하던 분야에 진출하여 그들과 경쟁하기 시작한 것이다.

'1817년 혁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파급 범위였다. 혁명은 헤시피에서 시작되어 알라고아스, 파라이바, 히우그란지두노르치의 오지까지 넓혀졌다.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냉대와 강력한 반(反) 포르투갈 정서는 혁명이 북동부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공통 동인(動因)이 되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회계층들이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다. 도시의 빈곤층에게 독립은 평등 사상과 연관되어 있었다. 한편, 지방 대농장주들의 주된 목표는 중앙 정부를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식민지 브라질 전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북동부의 운명만큼은 자신들의 손으로 결정하고자 했다.

혁명가들은 헤시피를 점령하고 '기본법(lei orgânica)'에 바탕을 둔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기본법에는 공화국의 수립과 권리의 평등, 종교의 관용 등이 천명되었는데, 노예제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 한편, 승인과 지원을 얻기 위해 다른 카피타니아들과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에 사자(使者)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반란이 오지로 확대되자 포르투갈 군은 즉각 헤시피를 포위하고 알라고아스에 상륙하여 공격을 개시했다. 전쟁이 내륙을 휩쓸면서 혁명가들의 준비 부족과 내부 대립이 드러났다. 결국 포르투갈 군은 1817년 5월 헤시피를 점령하고, 반란 주동자들을 체포, 처형하였다. 2개월 이상 지속된 이 혁명은 북동부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 * *

1817년 무렵에 누군가가 브라질이 5년 이내에 독립하리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신빙성 없는 예견으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페르남부쿠 혁명은 북동부로 한정되었고, 게다가 패배로 끝났다. 1814년 나폴레옹의 패배로 유럽전쟁이 종결되자, 왕실은 포르투갈과 브라질을 통합하여 단일 왕국 내의 두 지역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외견상 왕실이 브라질에 머물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 주앙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계속 남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1815년 12월 브라질을 포르투갈과 알가르베[4] 연합왕국의 지위로 격상시켰다. 수개월 후 여왕이 세상을 뜨자, 섭정 황태자는 동 주앙 6세의 칭호로 포르투갈, 브라질, 알가르베 연합

4) 알가르베(Algarve): 포르투갈 최남단 지역인 알가르베는 포르투갈 건국 이후 이슬람세력으로부터 레콩키스타(국토회복전쟁)를 통해 회복한 지역이다. 이러한 연유로 포르투갈 국왕은 전통적으로 '포르투갈·알가르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왕국의 국왕으로 즉위했다.

브라질의 독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브라질 자치를 지지하던 대부분의 가담자들도 미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된 것은, 다시 말해 자치 수호에서 독립운동으로 상황이 급변한 것은 외부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이었다.

1820년 8월, 포르투갈에서는 계몽주의에 자극받은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혁명주의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포르투갈의 탈출구를 모색하였다. 그 위기는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위기였다. 즉, 국왕의 부재 그리고 정부기관의 부재에서 비롯된 정치적 위기이고, 브라질에 유리한 무역 자유화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이며, 군의 고위직을 영국인들이 차지하는 불공평한 처우에서 연유한 군의 위기였다. 동 주앙의 부재 기간 중, 포르투갈은 영국군의 베레스포드 장군이 이끄는 섭정위원회에 의해 통치되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베레스포드는 포르투갈군의 사령관이 되었다.

포르투갈의 '1820년 혁명'에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들이 혼재해 있었다. 절대왕정을 구태의연한 억압적 체제로 간주하고, 의회와 같은 사회 대표기관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는 자유주의 혁명이라 정의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포르투갈 부르주아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영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브라질을 다시 한 번 포르투갈에 완전히 종속시키려 하였다.

1820년 말, 혁명주의자들은 포르투갈에 임시평의회를 수립하여 국왕의 이름으로 통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국왕이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포르투갈 왕국 내 모든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들로 구성된 의회(Cortes)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을

기초하고 승인하는 제헌의회의 역할이었다. 브라질에서는, 장차 주(província)로 불리게 될 카피타니아에 혁명을 지지하고 따르는 통치평의회를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포르투갈의 1820년 운동은 불만을 품은 군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브라질에서 이 운동의 반향이 최초로 일어난 곳도 포르투갈인들이 포함된 브라질 군대 내부였다. 군인들은 벨렝과 사우바도르에서 봉기하여 곧바로 통치평의회를 수립했다. 히우지자네이루에서는 시민들과 포르투갈 병사들이 시위를 일으켜 국왕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국왕은 내각의 개편을 단행하고, 통치평의회가 없는 곳에서는 평의회를 수립하며,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간접선거를 준비해야 했다.

이 무렵, 동 주앙 6세의 포르투갈 귀환을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났다. 히우지자네이루에서는 '포르투갈파(派)'가 국왕의 귀환을 주장하였다. 포르투갈파는 군 고위간부, 관료,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능한 한 식민 체제 틀 안에서 브라질을 다시 본국에 복속시키고자 하였다. 이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귀환에 반대한 것은 '브라질당(黨)'이었다. 여기에는 수도에 가까운 카피타니아의 지방 대농장주, 브라질 태생의 관료와 법조인들이 가담했다. 또한 식민지 브라질에 이해관계가 있는 포르투갈인,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상인들, 도시의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이들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투자가들은 대개 혼인을 통해 식민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기에서 '브라질당'을 언급할 때 따옴표를 붙인 이유는 그것이 본래 의미의 정당이 아니라, 의견의 추세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 선언은 특히 프리메이슨의 지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가장 급진적인 회원들은 독립을 지지했다.

동 주앙 6세의 포르투갈 귀환 문제는 곧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포르투갈에 돌아가지 않으면 왕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국왕은 결국 귀환을 결정했다. 1821년 4월, 동 주앙 6세는 4,000명의 포르투갈인을 이끌고 항해 길에 올랐다. 그 대신, 후에 동 페드루 1세가 되는 아들 페드루를 섭정 황태자로 남겼다. 이후 브라질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제헌의회 대의원을 결정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출된 의원들은 거의 모두 브라질 태생이었다. 그 중에는 1817년 혁명에 참가한 시프리아누 바라타(바이아), 무니스 타바리스(페르남부쿠), 안토니우 카를루스 히베이루 지 안드라다(상파울루) 등 독립에 대해 급진적인, 혹은 이전에 급진적이었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헌의회 개원은 브라질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도착하기 몇 달 전인 1821년 1월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식민지 브라질의 커다란 불만을 야기할 일련의 정책이 통과되었다. 브라질의 각 지방 정부는 히우지자네이루에서 독립하여 리스본에 직접 예속되게 되었다. 또한 영국과 체결한 통상조약을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영국만이 아니라 브라질의 지방 대농장주나 도시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유주의 혁명의 지도자들이 식민지 브라질을 경멸적으로 묘사하자, 끓어오르는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자유주의자 지도자들 대다수에게 브라질은 그저 '원숭이와 바나나, 그리고 아프리카 해안에서 끌려온 흑인들의 땅'에 지나지 않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순찰견이 필요한 곳일 뿐이었다.

1821년 9월말부터 10월에 걸쳐 의회가 또 다른 새로운 조치들을 결정하자, 브라질은 여러 대안 중에서 독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이때까지 독립은 매우 막연한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의회는 과거 동 주앙 6세가 브라질에 설립한 주요 행정기관을 리스본으로 이전하고, 히우지자네이루와 페르남

부쿠에 새로운 부대를 주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섭정 황태자의 본국 귀환을 의결함으로써 브라질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브라질당'은 동 페드루가 계속 브라질에 남도록 모든 힘을 결집했다. 결국 황태자는 브라질에 남기로 결정하였고, 그 선언의 날인 1822년 1월 9일은 일명 '잔류선언(나는 남겠다)'의 날(Dia do Fico)'로 기념되고 있다. 황태자의 잔류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잔류 선언 이후 섭정 황태자의 행동은 단절의 행동일 수밖에 없었다. 동 페드루에게 충성 서약을 거부한 포르투갈 부대는 히우지자네이루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그래서 브라질 군의 창설이 추진되었다. 동 페드루는 포르투갈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지만, 그 수장(首長)에는 브라질인 조제 보니파시우 지 안드라다 이 시우바(José Bonifácio de Andrada e Silva)가 임명되었다.

안드라다 형제(안토니우 카를루스, 마르칭 프란시스쿠, 조제 보니파시우) 중에서 특히 조제 보니파시우는 당시 브라질 정치의 중심인물이었다. 산투스의 가장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부친은 설탕수출에 종사했다. 코임브라대학에서 수학한 조제 보니파시우는 1783년부터 1819년까지 유럽에 체류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정부 요직에 오르거나, 코임브라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브라질로 돌아온 후에는, 1821년 3월 상파울루의 임시 평의회를 주재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조제 보니파시우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의 점진적 폐지, 농지개혁, 이민의 자유로운 허용 등 진보적인 사상을 주장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보수인사였는데, 어느 기회에 한 발언처럼 '더럽고 무질서한 민주주의의 너덜너덜한 깃발'의 적이었다. 계몽적인 지배계층으로 한정된 시민 대

독립인가 죽음인가 (페드루 아메리쿠, 1893)

표들이 뒷받침할 경우, 군주제가 브라질에 가장 적합한 통치 방식이라고 조제 보니파시우는 믿고 있었다.

브라질의 독립이 완결되어가는 과정에서, '브라질당'의 보수세력과 급진세력은 어느 정도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독립 직전의 수년 간, 보수진영은 포르투갈과의 관계에서 브라질 자치권의 확대를 주장하였을 뿐, 독립에 관한 인식은 그 이후 가지게 되었다. 보수진영의 시각에서는, 제한된 대표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제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통치형태이고, 질서와 사회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였다. 급진 진영을 정의하기는 더 까다롭다. 더욱 광범위한 민중의 참여와 다양한 자유, 특히 그 중에서도 출판의 자유를 확립하려는 군주제 지지자에서부터, 독립을 공화주의 사상이나 보통선거, 그리고 때로는 사회개혁과 연결시키려는 이른바 '극단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헌의회 소집이 결정된 이후에도 '포르투갈과의 연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단절·독립을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빨

라졌다. 이제 공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브라질 독립을 지지하는 맹세를 해야 했다. 그리고 각 지방 정부에는 포르투갈 출신을 채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전해졌다. 1822년 8월, 섭정 황태자는 본국에서 온 군 병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한다. 곤살베스 레두와 조제 보니파시우는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 선언문을 발송했다.

이 때 리스본에서 온 공문서가, 브라질이 본국과 완전하게 단절하고 독립을 이루어야한다는 사상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공문서에는 섭정 황태자의 포고는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각료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섭정 황태자의 리스본 귀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황태자비 도나 레오폴디나와 조제 보니파시우는 상파울루로 향하던 동 페드루에게 급히 이 소식을 전했다. 1822년 9월 7일, 이피랑가 강변에서 소식을 받은 동 페드루는 유명한 '이피랑가의 외침'을 발하였다.[5] 이로써 브라질은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했다. 12월 1일, 22세의 섭정 황태자는 황제의 위에 오르며 동 페드루 1세의 칭호를 받는다. 브라질은 군주정이라는 통치 형태를 유지한 채 독립하였다. 더욱이 새로운 국가의 왕위에는 포르투갈 출신의 국왕이 등극하였다.□

[번역: 최해성]

보리스 파우스투(Boris Fausto)– 브라질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 상파울루 대학 정치학 교수

---

5) 이 때 동 페드루의 외침은 '독립인가 죽음인가(Independência ou morte!)'였다고 한다.